

#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간 성의식 차이 분석 및 복음주의 상담학적 대안

전 요 섭 교수\*  
(Ph.D., Ed.D., 성결대학교)  
함 희 영  
(M.A., 성결심리상담연구소)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간 성의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복음주의 상담학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첫째,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간 성의식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독교청소년의 신앙배경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 가족의 신앙배경에 따라 혼전 성허용성의 차이가 있는가? 등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 지역의 중, 고등학생(314명)이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성의식 검사 지로써 공주대학교대학원 이경숙이 2006년에 사용한 것을 본 연구자들이 신뢰도를 측정한 뒤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S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one way ANOVA를 적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앙과 청소년의 성의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앙생활과 가족의 신앙배경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따른 혼전 성허용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모두가 기독교신자이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기간이 오래된 경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경우에 혼전 성허용성에 대한 기독교청소년들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독교신앙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문화와 성태도를 가르치는 일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중심단어 :** 청소년, 청소년성, 청소년상담, 기독교신앙, 성

## I. 여는 글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지나 신체적으로 제2차 성징이 발현하는 시기이다. 신체적 성장과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때부터 이성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과 성충동을 가지며 성적 갈등으로 고민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적 발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성고민과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서구 성개방 풍조의 만연, 한국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 남녀의 불평등적인 성역할과 성고정 관념 등이 성고민과 문제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은 올바른 성지식과 태도를 갖추지 않은 채로 성에 대한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성인잡지, 비디오, CD, 인터넷 등 음란물의 범람이 청소년의 성충동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으며, 그 속에 담겨있는 폭력성이 극단적인 성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가 갖고 있는 전반적 성문화인 성적 쾌락주의를 부추기는 각종 성관련 산업과 성을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성문화 등이 청소년 성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성 경험은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솔직하여 무분별하다고 생각할만큼 성관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병, 미혼모, 낙태 등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sup>1)</sup>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sup>2)</sup> 이에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청소년기의 특성을 통해 성의식 및 성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독교상담적인 입장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간 성의식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독교청소년의 신앙배경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 가족의 신앙배경에 따라 혼전 성 허용성의 차이가 있는가? 등이었다.

## II. 펴는 글

### 1.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개념과 특징

청소년이라는 영어 adolescence는 라틴어 adolescere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는 '성장한다' '성숙되어 간다'는 뜻으로 사춘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을 흔히 사춘기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사춘기를 일컫는 영어단어 puberty는 신체적 발달을 나타내며, 이는 성인기를 의미하는 라틴어 pubertas에서 파생된 단어로 주로 여자의 경우 생리가 시작되는 시기를, 남자의 경우 음부에 털이 나기 시작하는 시기를 의미한다.<sup>3)</sup> 즉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전환기로서 인생의 독특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식기능이 완숙되는 신체적 발달기로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인간의 생식본능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생활주기로서 출생 다음 가는 중요한 변화기이다.

청소년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연령, 신체적, 생리적 성숙도 및 심리적 성숙도 등 여러 가지를 들고 있으며, 그중 무엇을 기준으로 청소년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때를, 그리고 심리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를 청소년기로 본다.<sup>4)</sup> 청소년기를 나누는 기점을 신체적인 측면과 심리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의 연령을 중학교에 입학하는 15세에서 19세까지를 청소년기로 규정하고자 한다. 소년법에는 청소년기를 12세부터로 규정하고 있지만 학령으로 보아 중학교 1학년부터 청소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법률상 만 20세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19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으로 시작되고 문화적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춘기의 시작과 성적 성숙으로 청년기가 시작되고, 청년이 속한 사회에서의 문화적 기대와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청년기가 끝난다는 뜻이다. 사회적으로 청소년기는 사회적 자유가 허용될 때 시작하여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종결된다고 보겠다.

청소년기는 제2의 폭발적 성장기라고 할 만큼 신체, 성적인 성장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이다. 서구의 성장률 둔화에 반해, 국내 청소년들은 지난 30년 동안 신체발육이 꾸준히 향상되어 평균 체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대 발육이 일어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여자는 10-12세 구간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이며 17세가 되면 거의 성장이 완료된다. 이에 비해 남자는 12-13세에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며 20세까지 발육이 계속되는 추세를 보인다. 성적인 성숙은 사춘기를 기점으로 제1차 성징과 제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급격히 성장하여 16-18세까지는 성인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신체, 성적인 성장은 청소년 전기에 급등기를 거쳐 성장이 모두 완료되기 때문에 청소년 후기인 20대에는 성인 수준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sup>5)</sup> 그러나 청소년기의 규정은 단순히 신체적 특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서적인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John G. Hall은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들의 방황과 갈등, 저항은 급격한 신체, 생리적 성장으로 인한 것이며, 매우 자연스러운 인류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통제하려는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해 차츰 독립을 성취하려는 것이며, 개인적 성장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보았다.

청소년기는 방황과 갈등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아직 독립된 존재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확실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아직 어른도, 아이도 아닌 모호한 시기이다. 청소년들의 방황과 갈등은 내면의 의존과 독립 욕구 사이의 갈등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청소년들의 내면에는 언제까지나 부모에게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순종적이며 안전이 보

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나 교사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하고 싶은 욕구 역시 공존하는데, 이때에는 세상에 도전해야 하는 데서 오는 위협감을 느낄 수 있다. 청소년들의 내면에서 이 두 욕구가 상충할 때, 이들의 행동은 때로 순종적, 반항적, 충동적으로 변화무쌍하게 나타날 수 있다.<sup>6)</sup> 인격 성숙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된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은 사춘기 후에 급속도로 드러난다. 가정으로부터의 이탈 상태는 부모의 행동과 아동기에 가지고 있었던 인격의 구조와 성격, 환경의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의 투사로 부터 기인되는 불일치적 양상과 함께 자주 출현한다. 한국의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인격적 학습에 대한 강제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의 인격적 발달은 자발적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

## 2) 청소년과 기독교 신앙

청소년기가 되면서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유지해 나가는 존재로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대해 염려하는 행동으로 생각한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감각적인 경험 이상의 존재로 인식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우연히 만나는 것은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청소년기의 특징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갖게 되는 생각이다.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정체성을 찾으면서 이상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한 관심을 일으킨다.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그들은 비록 이전에는 지루하게 느껴졌을지라도 이 시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무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의식을 강하게 할 강력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을 통합하기 시작한다.

영적 발달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전형적으로 20대 초반으로 본다. 아동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부모가 말한 모든 것을 진실로 받아드리며,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자신의 부모의 종교적 신앙과 동일하게 택할지라도 그들이 십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는 부모로부터 강한 독립을 요구하게 된다.<sup>7)</sup>

Donald E. Capps는 청소년기의 단점을 신체적 허영심과 종교적 우월성으로 보았다. 신체적 허영심이나 외적인 성장에만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며, 내면으로 인한 평가보다는 겉으로 나타난 것에 의한 판단이 앞설 수 있다.<sup>8)</sup> Jean P. Deconchy는 청소년기를 하나님 개념의 발전 단계에서 '인격화의 단계'로 특징짓는다. 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sup>9)</sup> 청소년은 자연의 힘으로부터 구별된 어떤 자로서, 인물로서의 하나님을 감지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개념은 보다 존재론적이 되고, 속성의 단계로부터 어떤 자에게로, 즉 인격화의 단계로 발전된다. 인격화 개념은 주체가 하나님과의 체험에 의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속성에 관한 성경공부나 학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객관적 개념에서 비롯된다. 청소년은 관찰하는 것보다 관찰 당하는 것, 이해관계가 있는 것보다 흥미있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이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종교적 인식의 개념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내적 행동 자세에는 양면감정의 인상을 준다. 청소년 후기에 들어서면 하나님에 관계되는 인식은 전 생애 동안 일반적으로 무변화 상태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종교적 자세는 표면적으로 특수화되어 간다. 청소년기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아동기에 천둥, 번개가 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그럴 때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과 같이 두렵고 불안할 때 자신을 보호해 줄 심리적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입장은 종교심리학적인 견해이다.<sup>10)</sup> 청소년기의 신앙은 이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에서 보호받고 싶은 존재로 시작하여 차츰 종교적 신념으로 발달하게 된다. 청소년은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의 형성을 돕는 하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한다. 교회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또래집단을 만나는 친교적 장이기도 하며, 정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이다.

### 3) 성의 성서적, 일반적 개념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을 복으로 주셨다. 성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서 신성한 것이며, 가치있는 것이다. 성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모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관심분야이기도 하지만 청소년기에 이 관심은 최고조에 이른다. 인간의 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그 시대마다 새롭게 학습되어지며 성문화를 통해 개인의 성심리가 형성된다.<sup>11)</sup> 성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가장 밀접한 사단의 도구로 전락된 듯한 현상을 보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성스러운 곳에서 다루어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이 성스럽지 못한 곳에서 죄와 관련된 성을 배우게 될 것이 분명하다.<sup>12)</sup>

성교는 두 사람 사이에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는 것이다. 바울도 이 점에 대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엡 5:31-32)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성교와 영성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 몸이 되는 관계의 절정은 성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독교신자의 성적 충족감이 비기독교신자의 성적 충족감보다 더 높다.<sup>13)</sup> 성은 본질적으로 생명 창조를 위한 목적이 있지만, 부부의 하나됨을 위한 목적도 있다. 여기서 하나됨이란 육체적, 영적 친밀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을 멀리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성욕도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이다. 그러므로 성을 금기시하고 죄악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오해이다.

성을 나타내는 영어 sex라는 단어는 라틴어 ‘자르다’, ‘나누다’ 는 어원에서 유래했다. 즉, 남녀를 구분하는 성(gender)의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sex를 성기관이나 성행위에 연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sex는 자위행위, 포옹, 키스, 성교, 쾌락 등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14)</sup> 즉, 신체적, 생리적이면서 가장 단순한 의미의 선천적인 성의 개념이다. 그러나 성의 개념은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인 차이와 성행동은 물론, 가시화된 태도, 가치관 등 심리적, 문화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성심리적으로 살펴볼 때 남성과 여성의 성행동에는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는 섹스를 여자는 로맨스를 바란다.<sup>15)</sup> 남성과 여성의 성행동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현대의 만연되어 있는 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전통적인 성윤리는 남성은 성적 본능과 성충동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고 여성은 성적 본능이나 성충동을 표현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남성의 성 상대로서 수동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미덕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리고 남성의 성행동은 애정이나 사랑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해 주는 경향이 컸다.<sup>16)</sup>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한 포르노의 빈번한 접촉 및 대중매체로 인한 결혼 외의 성관계, 외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다. 이제 국내의 성 개방성은 오히려 서구문화권을 앞서 가는 상황에까지 왔다. 그러나 성에 대한 개방성이란 좋은 측면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하는 성의 개방적 문화속에서 개방적이지만 오히려 폐쇄되어진 성의 부분들만을 접하게 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성 인식 및 행동의 차이는 사회문화적 요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sup>17)</sup>

향락, 퇴폐, 유희, 음주 등은 사회전체의 성도덕을 타락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퇴폐적, 향락적 성문화는 10대 청소년의 성 일탈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사이버로 인한 성 일탈은 현실보다 더 강렬하고, 더 추하고, 더 엽기적일 수 있다.<sup>18)</sup>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늘어감에 따라 교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교회는 청소년들의 성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 4) 청소년과 성의식

청소년기의 성의식은 특히 자아기능 완성의 핵이 된다. 성의식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생물학적, 내분비계통의 변화 및 심리적 변화로 인해 잠복되어 있던 성본능이 눈을 뜨며 점차적으로 절정기에 도달한다. 오늘날의 청

소년은 이전 세대들 보다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성을 경험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각종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성을 묘사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하며, 때로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개인의 성 태도는 그가 살아온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양육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즉 건전한 성도덕과 성적 표현의 자유스러움 속에서 성장한 사람과 지나치게 성을 금기시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이성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다를 수 있다.<sup>19)</sup> 성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강할수록 이성을 대하는 태도나 성에 대해 심리적 측면이 아닌 육체적 측면을 강하게 나타낼 것이다.

청소년기의 호르몬의 변화와 인지적 발달은 성적욕구와 성적 활동이 증가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적으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들은 신체 및 호르몬의 변화 뿐 아니라 변화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성적 태도 및 행동에 혼란을 경험하기 쉽다.

Michael Meschke와 R. Sillbereisen의 연구에서 구동독과 서독에서는 부모의 감시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청소년의 성적 활동의 시작이 늦어진다는 점을 밝혀냈다.<sup>20)</sup> 또한 여기에서는 종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종교상의 신앙이 사춘기의 성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성적 활동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성문제에 대해서 죄의식 또는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청소년의 신앙적 태도는 부모의 신념과도 강한 관련이 있다. 부모의 기독교신앙이 확고하면 자녀에게도 신앙을 강요하게 되고, 그것과 함께 성에 대한 관념도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성 행동은 자위행위이다. 이에 대해 Gary R. Collins는 “자기의 성기를 자기 스스로 자극하여 오르가즘의 지점까지 이르르게 하는 것”<sup>21)</sup>이라고 정의했다. 자위행위는 청소년들의 공통된 변민이며, 소녀보다도 소년들에게 더 빈번하게 느끼는 문제이다.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자위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더럽고, 사악한 것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입한다. 어떤 청소년들은 자위행위의 문제로 너무 큰 혼란에 빠져

서 그들은 하루 종일 섹스에 대한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청소년들이 더 많은 자위행위를 하게 되면 점점 더 그것에 매이게 되고, 또한 그것을 더 원하면 원할수록 더욱더 그것의 뒷에 걸리는 커다란 악순환을 겪게 된다. 또한 자위행위와 성적인 환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박행위는 심리적으로 파괴적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을 차츰차츰 현실에서 밀어내는 진실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낯선 것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sup>22)</sup> 청소년들은 자위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이미지가 자위행위로 인해 손상을 입게 된다.

현대 청소년들은 남녀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성관계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게 된다.<sup>23)</sup> 여성의 첫 혼전 성관계의 평균 연령은 1960년대의 19세에서 1990년대에 17세로 떨어졌다. 또한 청소년들이 17-18세 나이대가 되면 대다수가 진한 키스와 유방 만지기를 한다. 그 연령층의 청소년들 중 약 70%가 진한 애무를 하며 성 행위는 4명중 1명이 한다.<sup>24)</sup> 이것이 미국의 실태이기는 하지만 국내도 대동소이하리라고 본다. 과거보다 십대들의 성행동이 더 적극적이고 혼전 성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혼전에 성경험을 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혼전 성경험자의 비율이 남녀 간의 차이가 컸으나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녀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입맞춤과 포옹 경험자는 7.2%, 성교 경험자는 3.8%이다.<sup>25)</sup> 학생집단에서 나온 결과이므로 다른 집단에서 더 높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삶 속에서 계속하여 새로운 성적 충동을 경험하게 되며,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배출하고, 은밀한 가운데 충족시켜 가고 있다. 혼전 성 관계를 죄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청소년들이 65.6%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다.<sup>26)</sup> 대중매체와 또래 친구들의 압력으로 인해 자신을 미성숙한 신체에서 완성된 신체로 만드는 것이 마치 성관계인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혼전 성관계의 결과로 미혼모, 임신 중절, 성적으로 전염되는 병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혼전 성관계를 경험한 60%의 학생들이 그로 인해 죄책감을 갖

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낮은 자존감은 혼전 성관계의 원인이 되지만, 동시에 결과도 된다. 혼전 성관계는 청소년에게 자기 의심, 불안, 비굴, 자기 혐오 등의 감정이 생겨나게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성의 44%와 여성의 26%는 성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일으켰다고 말했다.<sup>27)</sup> 이는 성적으로 활동적인 청소년들에게 성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의 경우 계획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임신으로, 성병으로 나타난다. 전체 여고생의 0.4%인 4,700여명이 임신을 해 이중 64.3%가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조사가 있다.<sup>28)</sup>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험하게 되는 성폭력의 경우도 있겠지만 혼전 성관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책임지기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확산될 것이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독교신앙의 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성의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기독교신앙을 가진 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들의 성의식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안양시, 산본시, 과천시, 수원시 등의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정하여 기독교신앙과 성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총 인원은 420명이며, 이 중 결측 반응이 많은 설문지 106부를 제외한 31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중학생이 161명, 고등학생이 152명, 그리고 졸업생 1명으로 총 314명이었다. 이 중 남학생은 162명이고, 여학생은 152명이다. 연구 대상자의 표집 방법은 현재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여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서울과 수원시, 안양시의 중,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이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중학생이 161명(51.3%), 고등학생이 152명(48.4%), 그리고 졸업생 1명(0.3%)로 총 314명이었다. 이 중 남학생은 162명(51.6%)이고, 여학생은 152명(48.4%)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신앙에서는 기독교가 162명(51.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불교 34명(10.8%), 천주교 27명(8.6%), 무교 79명(25.2%), 기타 12명(3.8%)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구분한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62	51.6%
	여자	152	48.4%
학년	중학생	161	51.3%
	고등학생	152	48.4%
	졸업생	1	0.3%
지역	대도시	228	72.6%
	중소도시	85	27.1%
	군단위	1	0.3%
종교	기독교	162	51.6%
	불교	34	10.8%
	천주교	27	8.6%
	없음	79	25.2%
	무교	12	3.8%
	합계	314	100%

#### 1) 측정도구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성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등간척도로 구성된 성의식 검사지와 기독교신앙요소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 (1) 기독교신앙요소 검사지

본 연구에 사용된 기독교신앙요소의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지는 1988년에 전요섭이 기독교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신앙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의 신뢰도는  $\alpha = .822$ 이다.

〈표 2〉 기독교신앙요소 검사지의 문항 구성

요인	문항수	주요내용
기독교신앙요소	7	주일예배참석, 성경, 기도, 교회봉사, 세례, 구원의 확신, 가족의 신앙(기독교)

## (2) 성의식 검사지

본 연구에 사용된 성의식 검사지는 공주대학교대학원 이경숙이 2006년도에 제작한 것으로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들이 수정, 보완한 것이다. 성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의 신뢰도는  $\alpha = .785$ 이다.

성의식 검사지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주요내용은 성에 대한 인식, 이성관계, 혼전 성관계와 자위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검사지는 자기보고 형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문 대상자가 직접 검사에 응답하도록 되었으며, 신앙의 유무에 상관 없이 모든 대상자가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성의식 검사지는 20개의 문항에 대해 Likert식 등간척도(1-매우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다. 4-대체로 아니다. 5-매우 아니다.)로 구성되었다. 본 검사지의 문항 구성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성의식 검사지의 문항 구성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주요내용
성에 대한 인식	3	1,2,3	성의 표현
이성 관계	4	4,5,6,7	학업, 정신적 사랑
혼전 성관계	8	8,9,10,11,12,13,16,19	순결, 애정 없는 성관계, 남자의 순결
성문제	2	17,18	낙태, 성충동
자위행위	1	20	죄의식

###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검사는 2006년 12월 27일부터 2007년 2월 23일까지 교회와 학원의 협조를 얻어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에 대해 설명한 후 담당교사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교회의 수련회와 학원의 수업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설문지의 응답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설문시간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검사의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점수화한 후 통계 프로그램 SPSS(S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을 이용하여 자료를 통계 처리하였다. 신앙과 성의식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신앙배경과 혼전 성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 2) 연구의 결과

연구문제 1의 결과,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간 성의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의하면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간 성의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의 결과, 기독교청소년의 신앙배경에 따라 성의식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의하면 기독교청소년 가족의 신앙 유무에 따른 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기독교신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성의식은 차이가 없다. 기독교신앙이 있는 청소년 중 세례를 받은 청소년과 받지 않은 청소년과의 성의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례, 신앙에 대한 신념이 있는 청소년들과 비기독교청소년들의 성의식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념보다 청소년들이 접하는 사회와 문화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받는 영향을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장치는 기독교 신념과 맞물려 작용되어야 한다. 기독교청소년의 구원 확신 여부와 성의식 간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의 결과, 청소년 가족의 신앙배경에 따라 혼전 성허용성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청소년 부모의 신앙여부에 따라 혼전 성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가족의 신앙여부와 함께 청소년의 기독교 신앙과 세례의 유무에 대한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시행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의 신앙배경에 따라 청소년의 혼전 성관계에 대한 생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개념은 부모와 형제, 자매가 기독교신자인 경우 그에 따른 기독교청소년의 생각도 부정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기독교신앙 유무에 따라 혼전 성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신앙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세례 유무에 따른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것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신앙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혼전 성관계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기독교신앙과 성의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독교신앙이 있는 청소년과 기독교신앙이 없는 청소년 사이의 혼전 성허용성의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안의 성교육과 가정 내의 성교육은 혼전 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한 결과라 생각되며, 가정과 학교, 교회 안의 성교육이 한 측면에서만 강조되는 교육이 아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4〉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및 신앙형태에 따른 청소년의 성의식 차이 분석

	SS	MS	F	p
기독교, 비기독교청소년 성의식	9.296	.266	1.068	.372
가족 신앙배경과 성의식	4.744	.169	1.047	.413
세례와 성의식	6.214	.222	1.235	.214
구원의 확신과 성의식	6.756	.241	1.004	.469
가족의 신앙배경과 혼전성관계	8.599	.661	2.842	.001***
기독교신앙과 혼전 성관계	8.599	.661	2.842	.001
세례 받음과 혼전 성관계	4.366	.364	2.105	.020*

\*p<.05 \*\*\*p<.001

### III. 닫는 글

현대의 성은 왜곡된 성지식과 성적 퇴폐의 현상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현대의 잘못된 성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 문화에 젖어 올바른 성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심과 의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을 함양하고, 성에 대한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앙배경에 따라 총 420명을 조사, 최종 314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였다. 첫째,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간의 성의식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독교청소년의 신앙배경에 따라 성의식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 가족의 신앙배경에 따라 혼전 성 허용성의 차이가 있는가?

기독교청소년과 비기독교청소년 간 성의식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청소년의 신앙배경에 성의식의 차이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인해 기독교청소년 또한 현대 사회의 성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성경적 신념이 사회의 성적 문란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된다. 기독교청소년들이 성경적인 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면 비기독교청소년 간의 성의식에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혼전 성 허용성의 차이는 가족의 신앙배경과 청소년의 기독교신앙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교회와 가정의 성교육이 전반적인 성의식에 대한 내용이 아닌 혼전 성 허용성에 대한 것만을 강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국의 성문화는 유교적, 가부장적 성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이중적 성윤리를 강요하였다. 남존여비의 성차별을 기본원리로 하여 남성은 어떤 성적 문제에 있어서도 허용적이고 여성의 성문제는 억압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혼전 성관계에 있어서도 남성은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여성의 혼전 성관계는 기피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는 남성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적 방법으로 여성이 사용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잣대는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청소년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성적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도덕적 성행태를 모방하고 있다. 성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밀접한 것으로 전락된 듯한 현상을 보게 된다. 성은 성스러운 곳에서 다루어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은 성스럽지 못한 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에 대한 태도나 성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교회 안에서 성경적 성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결혼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사역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있어 성적 호기심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심을 단순한 호기심에 국한시키고, 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성교육이 오히려 청소년의 성문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고, 성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밝힌다.

#### 【 참고문헌 】

- 김애순.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시그마, 2005.  
 노용오. 『청소년 지도사가 쓴 청소년 심리』. 서울: 구상, 2005.  
 윤진. 김태련. 광금주. 서봉연. 이춘재, 정진경. 문용린. 오경자. 심응철 공저. 『청소년 심리학』. 서울: 한국 청소년연구원, 1992.  
 이승재. 『기독교청소년 상담 핸드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이옥형. 『청년 심리학』. 파주: 집문당, 2006.  
 이해경. 방기연 공저. 『성 상담과 교육』. 서울: 범한, 2005.  
 임경수. 『인간발달이해와 기독교상담』. 서울: 학지사, 2004.

- 전요섭, 강경미, 김영희, 김준수, 김태수, 심수명, 안경승, 오윤선, 최광현, 한재희, 황규명 공저. 『복음주의 가정상담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전요섭. 『기독교상담과 신앙』. 서울: 좋은 나무, 2007.
- \_\_\_\_\_. 『사이버 심리와 목회상담』. 서울: 한국가정사역연구소, 2001.
- \_\_\_\_\_. 『신학에서 본 심리학』. 군포: 잠언, 1999.
- 전요섭, 황미선 공저. 『행복한 우리집』. 서울: 한국가정사역연구소, 2004.
- 정옥분. 『청년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5.
- 채규만. 『성행동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6.
-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공저. 『청소년 문제행동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2003.
- 시라이시 고이치, 팬더북 편집부 역. 『고교생 심리학』. 서울: 팬더북, 1990.
- Coleman, John C. & Leo B. Hendry. *The Nature of Adolescence*. 강영배, 김기현, 이은주 공역. 『청소년과 사회』. 파주: 성안당, 2005.
- Gary John. *Mars and Venus in the Bedroom: A Guide to Lasting Romance and Passion*. 김경숙 역.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의 침실 가꾸기』. 서울: 친구미디어, 1996.
- McDowell Josh. & Bob Hostetler.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오성춘 역. 『청소년 상담 핸드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Meier Paul D. Frank B. Minirth. Frank B. Wichern. & Donald E.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전요섭, 안경승, 이은규, 강경미, 한재희, 박행렬 공역. 『기독교상담심리학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Ornum William Van. & John B. Mordock. *Crisis Counseling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강문희 역. 『아동과 청소년 위기상담』. 서울: 교문사, 1991.
- 변미희, 이명순. “청소년의 종교 생활과 성의식의 관계”. 백석대학교. 『백석저널』. 제8호(2005): 76-98.
- 이명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의식 고찰” 수사연구사. 『수사연구』. 제203권(2000): 16-40.
- 조옥라. “경기도 농촌청소년 성의식 조사연구-9개 시,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도』. (1998): 35-52.

[ 후주 ]

\* 이 논문은 합희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발췌한 것이며 전요섭 교수가 지도한 것임.

- 1) 한상철 외, 『청소년 문제행동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2003), 129.
- 2) 변미희, 이명순, “청소년의 종교생활과 성의식의 관계”, 백석대학교, 『백석 저널』 제8호(2005): 76-98.
- 3) John C. Coleman, Leo B. Hendry, *The Nature of Adolescence*, 강영배 외 3인 공역, 『청소년과 사회』 (파주: 성안당, 2006), 37.
- 4) 정옥분, 『청년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5), 20-22.
- 5) 김애순,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시그마, 2005), 8-9.
- 6) 김애순,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15-16.
- 7) Paul D. Meier, Frank B. Minirth, Frank B. Wichern, & Donald E. Ratcliff,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전요섭 외 5인 공역, 『기독교상담심리학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321-22.
- 8) 임경수, 『인간발달이해와 기독교상담』 (서울: 학지사, 2004), 189.
- 9) William Van Ornum, John B Mordock, *Crisis Counseling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강문희 역, 『아동과 청소년의 위기상담』 (서울: 교문사, 1991), 63.
- 10) 전요섭, 『신학에서 본 심리학』 (군포: 잠언, 1999), 267.
- 11) 조옥라, “경기도 농촌청소년 성의식 조사연구-9개 시·군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경기도』 (1998): 35-52.
- 12) 전요섭, 황미선 공저, 『행복한 우리집』 (서울: 한국가정사역연구소, 2004), 263.
- 13) 전요섭 외 11인 공저, 『복음주의 가정상담학』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6), 77.
- 14) 채규만, 『성행동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6), 15.
- 15) John Gary, *Mars and Venus in the Bedroom: A Guide to Lasting Romance and Passion*, 김경숙 역,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의 침실 가꾸기』 (서울: 친구미디어, 1996), 17.
- 16) 노용오, 『청소년 지도사가 쓴 청소년 심리』 (서울: 구상, 2005), 174.
- 17) 이해경, 방기연 공저, 『성 상담과 교육』 (서울: 범한, 2005), 19.
- 18) 전요섭, 『사이버 심리와 목회상담』 (서울: 한국가정사역연구소, 2001), 77.
- 19) 김애순,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184-86.
- 20) Coleman & Hendry, *The Nature of Adolescence*, 169.
- 21) Josh McDowell & Bob Hostetler,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오성춘 역, 『청소년 상담핸드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67.
- 22) McDowell & Hostetler,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70.
- 23) 시라이시 고이치, 팬더북편집 역, 『고교생 심리학』 (서울: 팬더북, 1990), 265.
- 24) McDowell & Hostetler,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98.
- 25) 윤진 외 8인 공저, 『청소년 심리학』 (서울: 청소년연구원, 1992), 88-89.
- 26) 이승재, 『기독교청소년 상담 핸드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97.
- 27) McDowell & Hostetler,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106.
- 28) 이명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의식 고찰”, 수사연구사, 『수사연구』 제203권(2000, 9): 16-40.

【 Abstract 】

Impact of Christian Faith on Adolescents' Sexuality Perception.

Jeon Joseph & Ham Hee Young  
(Sungkyul University)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impact of Christian faith on adolescents' sexuality perception. When children grow up and enter adolescence, they not only experience physical maturation including voice change but also develop secondary sex characteristics, getting away from a sexual latency period. Adolescence is a time for growth spurts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Sexual hormonal changes speed up sexual development in boys and girls and increase their interests in and concerns about sex.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plores desirabl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sex among adolescents, taking distinctive aspects of the young into account.

The study is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assumptions: first, there would be difference in sexuality perception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youth. Second, there would be difference in sexuality perception among Christian adolescents in accordance with religious background of their family. Third, adolescents would demonstrate different views on premarital sex in accordance with family's religious background. A survey was conducted on 314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wo types of tests questioning about Christian beliefs and sexuality perception respectively were utilized to prove the assumptions. The first test on Christian beliefs was first applied to Christian adolescents by Joseph Jeon in 1988 and has been altered for this study. The second test on sexuality perception was used by Kyungsook Lee at Gongju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sychology in 2006 and has been adjusted for the study with careful consideration on reliability of survey results. To analyze 314 answer sheets collected,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one way ANOVA were applied, using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12.0.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Christian faith does not have significant impact on sexuality perception among the young. In contrast, the influence of the faith of adolescents themselves and their family as well as assur-

ance of salvation on their views about premarital sex appears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Boys and girls who have long been Christians or have assurance of salvation, or whose entire family believes in Christianity disclose negative views toward premarital sex. The study sheds light on the correlation between Christian belief and sexuality perception of adolescents and will lay the groundwork for teaching the youth sound culture and attitude toward sex.

**Key words:** adolescence, adolescent sex, adolescent counseling, sex attitude, Christian counseling.